

Protecting Our Planet with new technology

KC NEWSLETTER

Issue 63 • Nov. 2014

KC 코트렐

환경부 장관상 수상

환경기업의

입지 재확인

광양4소결 공정
EP 수주

광양 4열연
제강설비
원형ESP 준공

우리의 능력을 검증받다

제주도
상효원

이달우 회장님의

오랜 꿈이 이루어지다

고즈넉한 한라산 자락에
위치한 바람마저
차분해지는 상효원

KC WORKS TOGETHER WITH DETERMINED, CREATIVE INDIVIDUALS



정량적, 계층적 평가
친환경적 접근 방법
환경을 위한 노력
모두를 인정 받은 KC코트렐



환경 선두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번 굳
힌 KC코트렐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유공 기업

환경부 장관상 수상

KC 코트렐의 환경기업으로서의 위상은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유공기업 환경부 장관상 수상으로 다시 한번 확인 되었다.

KC코트렐은 10월21일 코엑스에서 거행된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유공 시상식'에서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본 행사는 환경부가 주관하는 행사로 친환경을 실천하는 모범 기업과 자치단체, 개인 등의 공로를 시상한다. 특히 올해 시상식은 지난해 정부 6개 부처에서 4개 부처가 늘어난 총 10개 부처(환경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가 후원하는 등 규모가 더욱 확

대됐다. 이번 시상은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공모신청과 전문가 추천을 통해 후보군을 선정하였으며, 대상 기업과 자치체, 개인들에 대해 위원회에서 선정된 심사위원들이 주요지표와 각 분야별 친환경 노력, 의지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진행되었다. KC코트렐은 환경산업 해외수출진흥 부문으로 신청하였으며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

종적으로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다. 심재곤 대한민국친환경대상위원회 선정위원장은 "미래의 환경가치에 중점을 두었다"며 "사회적 주문을 반영해 환경발전과 사회공익차원의 참여부문까지 선정과정에 포함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진행했다"고 말하였다. 행사장에는 국무총리와 환경부 장관이 참석하여 시상을 하였으며 이태

영사장은 다른 수상자들과 함께 수상의 기쁨을 나누었다.



//
국내 최고의 환경
전문회사로서의
기술력을 다시 한
번 인정 받는 원
형 ESP 준공

광양 4열연 제강설비 원형 ESP 준공

지 난달 31일 광양제철소에서는 권 오준 포스코 회장님의 주관으로 고객사, 공급사 및 그룹사 대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열연 제강설비(3제강) 준공식이 거행되었습니다. 포스코는 고급강 생산 특히 자동차용 강판의 부하를 줄이고 점차 늘어나는 고급강 수요에 맞춰 년산 생산규모 330만톤, 총 투자비(열연,연주,제강) 1조 6,262억 원 규모의 본 사업을 3년여간에 걸쳐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그동안 해외 엔지니어링사에 의존하던 기존의 투자 형식에서 탈피하여 초기 단계에서부터 주요 그룹사와 협력사가 자력으로 설계하고 건설함으로써 100% 독자적 엔지니어링 역량을 완성했다는 평가입니다.

당사는 본 사업의 제강부문에 건식 환경설비인 원형EP와 부

속설비를 2011년 11월 포스코 건설로부터 수주받아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함으로써 국내 최고의 환경 전문회사로서의 기술력을 다시한번 포스코페밀사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일명 L.T(Lurgi Thssen)으로 불리는 제강 건식 환경설비는 고부가가치의 기술 집약형 전기집진기로 SVAI, GEA등 유럽의 일부 회사만이 독점 공급해 왔으나 당사도 금번 사업을 통해 설계, 기자재 납품 실적을 확보함으로써 세계 제철시장에서 어깨를 견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되었으며 KC자체 설계능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LT 건식 설비는 습식 환경설비인 O.G(Oxygen Gas)시스템 대비 폐수에 따른 2차 오염이 없고 에너지 절감으로 인한 유지비가 절약되어 점차 LT시스템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며 공급

사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고부가가치의 설비라는 점에서 그 가치와 매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포스코에서 운영중인 포항 6기, 광양 3기의 OG System설비를 환경개선 및 운영비 절감을 위해 OG Type -> 건식 Type 으로 변경 투자 계획에 따른 당사의 추가 영업수주와 매출 확보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번 사업을 통해 우리는 또 하나의 차별화된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대기환경설비의 전문가로서의 위상과 경쟁력을 한층 높이게 되었으며 축적된 설계능력 과 실적을 기초로 전세계로 영업력을 확대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글쓴이 마준 팀장

제6회 한중 녹색경제협력 포럼의 KC 코트렐

토마토, 망고와 같은 고온작물 재배지의 난방열로 활용하고, 이산화탄소를 공급하여 딸기, 블루베리 등 과일의 광합성을 촉진시켜 당도를 높이고 출하시기를 앞당기고 있다”며 “이를 통해 수익을 3배 증가시키고 연료비를 80% 감소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양국 기업인들은 지린성환경과학연구원의 ‘기업 청결생산 현황과 발전구상’, 지린성에너지국 신에너지처의 ‘지린성 생물에너지발전 현황과 전망’ 등 에너지·환경 기술에 대한 총 18건의 주제발표를 통해 한중 양국간 에너지·환경산업 협력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녹색산업 시장진출 및 기술협력 증대 방안을 모색하였다.



대한상공회의소(KCCI)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6회 한중 녹색경제협력 포럼이 2014년 10월16일 중국 지린성(吉林省) 창춘시(長春) 웨라톤 호텔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태영 KC코트렐 사장, 박기서 부사장 등 한국측 인사 100여명과 장웨이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부회장, 한위진 CCPIT 지린성분회 부회장, 왕리 CCPIT 부부장 등을 비롯한 중국 기업인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로 6회를 맞이하는 한중녹색경제협력포럼이 한국과 중국기업 간의 환경·에너지 분야 협력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이 자리를 통해 양국이 환경·녹색산업 부문의 발전과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나가자”고 말했다.

장웨이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부회장도 “한국과 중국은 최대 무역파트너로서 각 분야에서 협력을 견고히 하고 있다”면서 “녹색산업분야에서 양국 기업들이 협력하여 녹색강국으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제1세션(한중 에너지

지환경보호기술 협력과 전망)과 제2세션(한중 녹색산업 협력과 지속가능발전)이 동시에 진행되었고 참석한 기업인들은 에너지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다양한 신기술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박기서 부사장님은 KC Cottrell을 대표하여 석탄발전소의 초미세 분진제어(fine particulate matter control for fossil power station) 발표주제를 가지고 Wet ESP기술에 대해 20분간 소개하였다.

남부발전은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온배수와 이산화탄소를 농작물 재배에 이용한 사례를 소개하며 “온배수를 파프리카,



석탄발전소의 초미세 분진제어란 주제로 발표하는 박기서 부사장



세계속의 KC코트렐 차순근 법인장

한국일보 발췌 기사

가깝지만 어려운 나라 중국에서

KC코트렐의 세계화를 위해 열정을 쏟고 있는 차순근 법인장



대 기오염방지시설 전문기업 KC코트렐의 차순근(53·사진) 중국법인장은 “중국 시장을 만만히 보면 안 된다”고 말했다.

차 법인장은 2002년 KC코트렐이 합작형태로 지린성(吉林省) 창춘(長春)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직후부터 10년 넘게 중국의 친환경시장을 개척해왔다. 기술관리부터 법인 운영 전반까지 꼼꼼히 챙기며 중국 시장에 우리 기술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게 한 주인공이다.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차 법인장이 중국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으로 꼽는 세 가지는 철저한 시장조사와 품질, 그리고 자금력이다. 그는 “자동차나 전자는 대규모 설비투자 등 자본력의 우위가 경쟁우위로 이어질 수 있지만 환경분야는 즉시 회수가 어려운 만큼 자금 투자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기술력이 있다면 현지 파트너와 협력해 초반에 자본을 덜 들이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KC코트렐도 중국기업과 합작으로 시작했지만 2005년 지분을 모두 인수, 현재는 100% 우리 자본으로 운영 중이다. 글로벌기업에 뒤지지 않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매출이 초창기 80억원 정도에서 300억원 규모로 불었고, 직원은 20여 명에서 현재는 1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창춘에 사옥도 건립하고 제법 자리를 잡았지만 차 법인장은 “성공이라고 하기에는 이르고 단지 조금씩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 친환경시장은 치열한 기술경쟁의 장이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것은 결국 중국 직원들”이라며 “그들과 발전적인 관계를 맺으며 소통하는 것은 기술력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준비된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치열한 중국 시장에서 KC코트렐의 기술을 바탕으로 사람을 생각하며 일하는 KCCN 차순근 법인장



제주도 자연 그대로의 상효원

이달우 회장님의
오랜 꿈이 이루어진
한라산 자락에
고즈넉히 자리잡은
아름다운 상효원

한라산이 내려다보이는 고즈넉한 곳에 위치한 상효원은 제주도의 매서운 바람조차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곳에 자리 잡고 있다. 피라미드 형태의 건물, 하얀 구름, 햇빛을 머금은 한라산이 반겨주는 상효원의 입구는 자연의 신성함이 깃들여져 있는 듯하였다.

상효원 입구를 중심으로 좌측에는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캐러밴과 캠핑장이 마련되어 있다. 포근한 날씨가 함께 한다면 한라산 기슭에서 맑은 공기 속에 밤하늘의 수많은 별을 헤아리며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에 이보다 좋은 곳이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본관을 지나 과실수가 자리 잡고 있는 요름정원이 처음 눈에 들어온다. 이미 수확이 지났지만, 사철나무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정원은 아직 푸르름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다양한 나무들 사이로 난 길을 걷다 보면 눈이 확 띄는 곳이 나타난다. 푸릇푸릇한 잔디와 단풍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에 자연스럽게 있는 오두막, 엄마의 정원은 이달우 회장이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만든 공간이다. 하늘색 푸른 종이에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처럼 순수함이 남아 있는 엄마의 정원을 바라보면서 하얗게 눈이 내리는 날 비로 포대를 들고 언덕을 신나게 내려오는 아이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엄마의 정원을 지나 소낭아래를 가는 길은 적절히 햇볕을 가려

주는 나무들과 바스락바스락 소리 내며 가는 길을 안내해주는 낙엽들이 있어 추억에 잠기기에 좋았다. 개인적으로 상효원의 모든 나무와 식물들이 좋았지만, 그보다 더 아름답게 느껴졌던 곳이 바로 식물원 이곳저곳을 가기 위해 걸었던 길들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상효원에서 주저 없이 최고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바로 소낭아래이다.

350년이라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커다란 장송. 주변의 나무들 속에서 위용을 자랑하는, 그래서 잔디 위에서 있는 그 자태만으로도 드넓은 공간을 가득 채우는 상효송은 환경을 위해 묵묵히 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달우 회장의 모습과 닮았다. 평일에는 근처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가족들이 잔디에 옹기종기 앉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



숨을 내려다보는 장송은 무력무력 자라나는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노송의 따스한 시선을 받으며 도체비 정원을 지나 산뜻한 꽃의 정원에 도달했다. 늦은 가을이라 삭막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저 멀리서부터 달콤한 꽃 내음이 풍겨왔다. 풍성하게 피어있는 형형색색의 꽃들을 보고 있자면 어느새 봄이 왔나 하는 착각이 들 정도

였다. 꽃들 사이로 놓여있는 하트에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가득 찼다. 상호원의 길은 저마다의 매력을 뽐내고 있다. 한 곳 한 곳 각각의 여운을 느낄 수 있도록 걸음걸음마다 다채로운 나무들 사이로 뻗어진 길들은 그저 걷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곳이었다. 상호원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카페테리아는 함께 간 이와 함께

여운을 나누며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장소였다. 바깥의 시간과는 다르게 천천히 시간을 흘려보내며 걷다 보니 어느덧 상호원 끝자락에 자리한 바운싱 돔에 도착하게 되었다. 다양한 수목의 푸르름 대신 아이들의 웃음과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미소로 가득한 바운싱 돔은 상호원의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곳이다. 푸른 하늘에 두둥실 떠 있는 구름을 그대로 내려놓은

듯한 에어 바운스 위로 아이들이 뛰놀고 연인들은 가만히 앉아 소곤소곤 사랑을 속삭이는 모습은 사람이 자연에게 돌려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요름정원에서부터 바운싱 돔에 도착할 때까지 언제 상호원에 왔는지 그리고 지금이 몇 신지 상호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시간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복잡한 도시속에서 시간에 쫓기며 달

리는 사회인이 아닌 청명한 하늘 아래 웅장한 한라산 속의 작은 자연인으로서의 시간은 우리가 살아온 시간과는 다른 차원의 시간이었다. 오래전 한 광고의 말처럼 핸드폰을 잠시 꺼놓아도 좋은 상호원, 모든 걸 끄고 자연을 느끼기에 즐거운 장소일 것이다.

광양4소결공정 EP수주



제철사업부는 지난달 27일 (주)포스코와 “광양제철소 4소결 2호 공정용 전기집진기 교체공사”건에 대한 계약을 57.1억원(부가세 별도)에 체결하였습니다. 내년 3월말 납기인 금번 사업은 EPC Turn Key 공급 조건으로 성능 보증 조건은 출구 분진농도 20mg/Nm³이하 입니다.

본 광양 4소결 공정EP는 당사에게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집진기라 할 수 있습니다. 광양제철소 4기 사업이 준공되었던 1992년 당시만 하여도 광양제철소 1~4소결공장의 모든 전기집진기는 독일의 “Lurgi”사에 공급하였었습니다. 이후 2004년 본 집진기의 내장품을 당사가 교체하면서 광양 소결공장에 처음으로 진입할 수가 있었으며 신뢰와 기술력을 인정받아 “소결 배가스 청정설비(DISEC)”라는 초대형 환경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시장 진입이후 꼭 10년이 지난 현재, 광양 소결공장에는 총 35기의 전기

집진기가 운전되고 있으며 이중에서 당사가 공급한 EP는 30기로 머지 않은 미래에 KC의 전기집진기가 광양제철소 소결공장 전역에서 가동될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당초 본 사업은 설비노후화에 따른 집진성능의 개선과 후단설비의 강건화를 위해 3,4소결 총 4개의 전기집진기를 일괄로 교체하는 대형사업이었으나 포스코의 투자비 절감 정책에 따라 '16년 상반기까지 4차례에 나누어 분산 투자하는 것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투자 방식의 전환 후 맞이한 첫 번째 입찰을 성공적으로 수주함으로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주요한 위치를 당사가 먼저 선점하였고 향후 내정되어 있는 후속 사업들에 대한 수주 확률과 기대가 한층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10년전 시장 개척시의 각오를 떠올리며 재도약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열정적인 꿈과 새로운 다짐을 해 보게 됩니다.

KC 관계사 2015년 사업계획 발표

KC 관계사의 2015년 사업계획 발표회가 11월부터 상암동 신사옥에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KC코트렐의 사업부가 11월20일, APC 해외법인이 21일, 환경서비스(ES)부문이 25일, 신재생에너지부문이 12월2일 진행될 예정이며, KC코트렐 자회사인 KC에어필터텍과 NT코리아는 11월24일 진행됩니다. 이번 사업계획 발표회를 통하여 각 사는 2014년 경영실적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사업환경에 대한 분석과 상황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2015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KC그린홀딩스는 발표된 모든 사업계획을 각 부문과 협의하고 조정하여 2015년 사업계획으로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KC NEWSLETTER

A GLOBAL LEADER IN GREEN BUSINESS
